a room of her own_embracing beauty

a room of her own은 꿈 드로잉 단편에서 출발하여, 가장 은밀하고 폐쇄적이며 보이지 않는 그녀만의 'room' 을 과감히 OPEN FORM으로 공유함으로 비밀의 공간을 새로운 시공간으로 드러낸다.
나와 타인이라는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의 욕망[-보여주고 싶은, 보고 싶은-]을 유효하게 작용하여, 거기서 파생되는 관계, 온도, 밀도, 욕망을 그린다.
Cage crinoline은 여성의 미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장식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다양하다. 19세기 중반에 여성들은 그 장치를 입음으로써 남성들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자기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공간은 순종적이고 종속적인 여성을 바라는 억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여성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과장되고 가식적인 이 화려한 오브젝트는 여성성을 극대화하였다.
이 극도로 '아름다운 구속' 이라는 것에 이끌려 나는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오브젝트를 제작하였다.
그 공간에 숨어있는 은밀한 힘과 욕망은 인간의 당당함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정림

한정림의 전시제목에 처음에는 의아했다. '선을 넘으면 가만있지 않을테다' 라는 고양이 발톱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다.
샹들리에에 짝을 잃거나 더 이상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장신구와 양초들을 열매처럼 걸고 촛농이 서서히 바닥에 눈물처럼 떨어지는 예전 작품이 떠오른다.
그때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대화한 기억이 있다.
그런 감성이 이제는 자신만의 방에 고집스럽게 갇혀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하지만 자신이 기르는 앵무새나 종이 피규어들이 등장하는 한정림의 지난 작업들을 되짚어 보면 그녀의 방에서 증식되었던 것은 화석처럼 굳어진 무엇인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개인전에는 '장식'이라는 단어, 동네를 산책하며 마주치는 매일의 사물들이 '새로운 풍경'으로 둔갑하고, 그녀의 작업에 종종 등장하는 '여성성'도 캐모플라쥬를 넘나드는 경쾌한 다양성으로 변모했다.
적당한 거리를 두지만 '넌 결코 내 방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메세지 보다 오히려 말 없이 근사한(한정림의 여유롭고 멋진 웃음처럼) 초대를 건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한정림 같은 좋은 예술가가 한 동네에 살며 서로의 정원에 대해, 새와 곤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나는 무척 기분이 좋다.

이대일 (전시 기획자, 조각가)

* cage crinoline -hidden sanctuary

* dolls

* black chandelier

* flora's hat / alice&clara&netty's hat

* cages : vanishing point-empty rooms

* merry-go-round

* weaving dreams